대행스님

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〈글책임: 편집자〉 ● 보낼곳: 우 110-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-33 현대불교신문사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 ● 인터넷: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 선원 ● FAX: (031)470-3116

알음알이로만 알고 흘려버리지 말고 도의 길을 직접 걸어가 봐야

삶의 실체에 대해서

문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업보도 지은 게 없고 원죄도 없이 …

중심을 딱 세우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실로 믿고 놓을 때 해결이 나는 겁니다

그림 · 최주현

얼마만큼 진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

에요? 그렇지만 찾기는 뭘 찾습니까, 본래 가지고 있는 건데.

저 나무들처럼 자기 뿌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깐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모든 …

생활선이 되게 하려면

공부에 진척이 없어

행주좌와 어묵동정의 경지

진짜로 믿어지지가 않아

삼독심의 역할

☞ 30면으로 계속

☞ 29면에서 계속

자기 껍데기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왜 자신을 형성한 '참자기' 못 믿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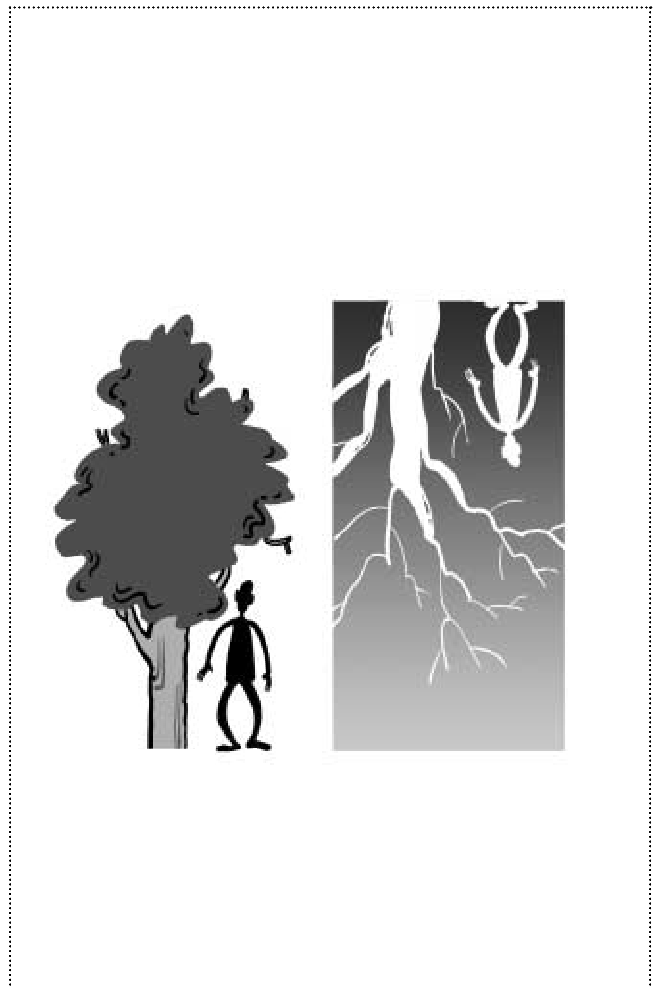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벗어날 수 있는지?

동생을 살릴 수 없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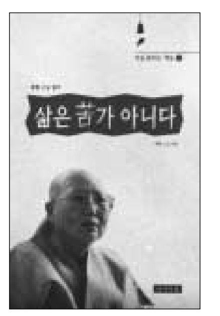
자기의 일 자기가 해결하도록 평상시 관하는 도리 가르쳐야

부딪침이 많은데

자기라는 걸 세우기 때문에 아상도 무명도 생기는 것

… 두가 한 마당의 공이기 때문에 자기라고 국한 지어서 생각하는 건 아상만 커지는 겁니다. 그러니 일체를 다 내려놓고 둥글려서 한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

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,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(苦)가 아니다



A5신 288쪽 값 6,000원
여시아문

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(팩스:031-470-3116)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(http://www.hanmaum.org)로 연락 바랍니다.